

경기도내 도심지 저탄소 그린지역(Low Carbon Green Zone) 지정을 위한 사례연구

< 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안 대 희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에너지 효율 및 환경성을 고려한 미래 청정도시의 실현과 시범적인 도심 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또한 개별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례 연구를 통하여 향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진국의 도시재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국내외 도심지 환경지역 지정,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사업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경기도 소재 개별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심지역, 신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등에 적용 가능한 선진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도심지 환경지역(Clean Zone) 지정·운영 사례조사를 통해 그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제공 및 미래 청정도시의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바람직한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및 통계조사, 전문가 회의 및 자문 등을 통해 진행하였는데 첫째, 저탄소 도시의 개념에 대한 문헌과 사례고찰을 통해 저탄소 그린지역에 대한 개념과 계획요소를 제시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저탄소 계획요소 도출현황을 살펴 본 후 도출된 요소의 적용 사례검토를 통해 적용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셋째, 도출된 적용사례의 특징을 고려하여 경기도내 31개 지자체를 각 유형별로 도심지역, 신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자체 유형별 저탄소 계획요소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각 계획요소 적용시 고려할 점을 바탕으로 지자체 유형별 저탄소 계획요소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각 도시유형별 대

표도시들을 선출하여, 최적의 탄소제로 계획요소를 적용하였다.

III. 기대성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자국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즉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인 이산화탄소(CO₂)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각국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과 이것을 이용한 제로에너지 개발 개념을 도시계획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이 창출되고 있는데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도심지 환경지역(Clean Zone) 지정을 위한 사례 연구를 통해 선진국들의 앞선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제로에너지 기술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자연적·인문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여건에 적합한 탄소제로 도시 모델의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V. 활용방안

향후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시대에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를 이용한 탄소제로 도시의 건설은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에 도심지 환경지역(Clean Zone) 지정을 위한 사례 연구 성과를 이용하여 도심 재개발계획이나 신도시 개발계획에 탄소제로 도시 개념 도입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